

기지가 켜는 K리그...뜨거워지는 광주FC

광주전용구장 훈련 모습 첫 공개
선수들 페이스 끌어올리기 박차
박진섭 감독 "초반 싸움에 성패"
개막 이전 두차례 연습경기 계획
축구연맹, 올 시즌 일정 내일 확정

KBO리그에 이어 K리그도 기지가 켜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K리그 2020시즌 일정이 24일 확정된다.

한국축구연맹은 이날 서울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K리그 2020시즌 개막일과 경기 수를 결정한다.

KBO리그의 5월 5일 개막이 확정된 데 이어 K리그도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공중 잠겨있던 그라운드도 21일을 기점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일 "정부가 4월 19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17일 금지했던 다른 팀과의 연습경기를 4월 2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재진도 코로나19 대응 취재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수단 취재가 가능해졌다.

올 시즌 새로운 안방이 될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훈련을 해왔던 광주FC 선수들의 훈련도 공개됐다. 광주는 지난 2월 29일 성남FC를 상대로 K리그1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막이 연기되면서 복귀전을 미루고 새 운동장과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2020시즌을 준비해왔다.

빠르면 다음 달 9-10일 광주의 첫 승 도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막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지만 아직 개막 일정은 물론 경기 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당초 일차



공격수 펠리페 등 광주FC의 선수들이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조별로 훈련을 하고 있다.

보다 개막이 두 달 이상 늦어지게 되면서 경기 수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를 지휘하는 박진섭 감독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기다렸던 날을 맞았다는 각오다. '초반 싸움'이 박 감독이 짚는 키워드다.

박 감독은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4월, 5월, 6월 개막을 각각 생각하면서 시즌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페이스를 올리고 있다"며 "(경기수는) 중요할 것 같지 않고 다들 처음 겪어보는 5월 개막이니 4 초반에 어떻게 선수들 분위기 컨디션을 끌고 가

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첫 상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박진섭 감독은 '광주'에 집중해 초반싸움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박 감독은 "상대 팀,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우리팀이 부족한 게 뭐지 단점이 뭔지 보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잘해야 할지 우리팀을 연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갈지 확실하게 정해서 연습경기를 치를 생각이다.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플랜도 고민해

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개막에 앞서 두 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필드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박 감독은 "1군 선수들은 1주일에 한 차례 2경기를 하게 될 것 같다. 경기에 못 나가는 선수들을 위해서도 1-2경기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시즌 우리 선수를 잡혀왔다. 올해 다른 K리그1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한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광주FC 박진섭 감독.

5월 중순 개막 준비 K리그 과제도 산적

시즌권 환불·관중석 거리두기 고심
일정 축소에 스폰서 광고 영업 타격

"시즌권을 판매하면서 선물도 함께 증정했는데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지정 좌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애매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프로축구 K리그가 '5월 중순 개막'을 준비하면서 구단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개막일이 두 달 넘게 연기돼 리그 일정 축

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단들은 광고 스폰서 계약부터 시즌권 환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접접산 중'이다.

하지만 2월 29일 개막 예정이던 개막일이 5월 중순으로 밀리면서 구단들은 당장 시즌권 환불과 홈구장 A보드 판매 협상이 당장 발등의 불이 됐다.

이번 시즌이 38라운드 대신 27라운드(정규리그 22라운드+스플릿 5라운드)로 치러질 전망이다. 홈 경기 횟수가 기존 18-19회에서 13-14차례로 줄어 시즌권 환불 또는 부분 환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시즌이 개막돼도 한동안은 무관중 경기

로 치러질 공산이 커서 실제로 팬들이 볼 수 있는 경기는 더 줄어들다.

수도권의 한 구단 관계자는 "시즌권이 많이 팔렸지만 다행스럽게 아직 환불 요청은 적다"라며 "하지만 리그 일정이 줄면 시즌권 부분 환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시즌권도 자유석보다 지정 좌석이 더 문제가 크다.

리그가 개막된 이후 무관중에서 유관중으로 바뀌어도 한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팬들끼리 좌석을 벌려놔야 하는 상황도 구단에는 부담스럽다.

K리그 구단 관계자는 "자유석은 팬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떨어져 앉을 수 있지만 지정석은 곤란한 부분이 많다"라며 "2-6인석으로 판매한 테이블석 등은 일행이 떨어져 앉을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은 최근 시즌권 환불 요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구단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팬들이 시즌권의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 구단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경기 수 축소에 따른 부분 환불의 경우 시즌권 구매자에게 구단 상품이나 이벤트 초대권 등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즌 일정의 축소로 구단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폰서 광고 영업도 타격이 크다. 일부 구단들은 연습경기 자체 인터넷 중계를 통해 스폰서 광고 노출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핸드볼 종합 교습서 '모두의 핸드볼' 발간

광주시핸드볼협회, 관련단체 배포



광주시핸드볼협회(회장 유석우)는 22일 "대한핸드볼협회가 기초부터 응용 기술까지 핸드볼 전반을 쉽게 설명한 종합 교습서 '모두의 핸드볼' (사진)을 발간, 광주시 핸드볼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핸드볼'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대표팀 금메달 감독인 정형균 한국체대 교수가 저자를 맡았다.

현재 아시아연맹 기술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대표팀과 한국체대 등에서 핸드볼을 가르치며 얻은 노하우와 최신 핸드볼 트렌드를 책에 담아냈다.

협회는 현장에서 핸드볼을 가르치는 각급 학교와 실업팀 지도자들에게 교습서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강습 동영상은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 교습서는 또 전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살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여성체육 활성화 본격 나선다

여성체육위원회 꾸려...위원장에 이송자

전남도체육회가 여성체육 활성화에 나섰다. 도체육회는 최근 전남체육회관에서 '2020년도 제1차 여성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여성체육위원회는 도체육회 11개 소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체육을 전담하는 위원회다.

위원들은 여성체육의 지도 및 보급과 여성체육 행사-체육프로그램 개발, 여자선수 육성 등 여성체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연구·조사하게 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이송자 회장이 새로 꾸려진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은 정명희 화순군정 비서관 겸 감독, 장선

희 나주시청 사이클팀 감독, 윤희경 전남조리과학고 불링부 지도자, 이효순 흥선산업 대표, 양지애 양지기획사 대표, 김연진 전남벨리댄스협회장, 박은숙 전남여성경제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오경화 전남체육협회 부회장, 최진희 전남매일신문 체육부장, 한정우 전남조정협회장, 조미정 광양LF아울렛 지고트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김재무 도체육회장은 "최근 전남출신의 여자 복싱 임애지 선수가 한국 여자복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전남 여성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였다"며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 여성체육인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여성체육위원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어벤져스: 오픈 더 도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3관	언어의 정원, 1917, 레터스 투 줄리엣
4관	어벤져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5관	오픈 더 도어, 고양이와 할아버지
9관	라라랜드
7관	씨네캐슬 서치 아웃, 그녀의 비밀정원
8관	씨네캐슬 어벤져스: 미드나잇 선 애프터 웨딩 인 뉴욕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포커스 II-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